

지자체 후보로

연합공천 확정

지역사회단체와 여성들이 추대한 후보

인천 십정동 '햇님방 선생님' 홍미영 씨



을 많이 발굴하는 데 있었는데 내가 나선다는 게 옳지 않다 싶었습니다. 더구나 인천지역에 마땅한 여성협의구조도 없는 상황에서 지역사회단체에 의해 거명돼 나가는 것도 그랬고...

수 있을까 하는 개인적 고민도 많았죠." 이런 크고 작은 문제로 '절대 불가' 반응을 보였던 그가 마음을 결정적으로 바꾼 데는 지방의회의 중요성을 절감하면서 '설사 떨어지더라도' 얻을 수 있는 효과가 크다는 믿음 때문이었다.

"저나 우리 어머니들은 그간 뒤에 서서 적십자회비 문제며 하수도 건, 놀이터, 공중전화 설치, 복강경수술 휴유증문제를 거론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정식으로 이런 문제를 앞에 내놓고 할 때가 왔고 그 시기가 바로 지금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것의 해결은 바로 이 문제를 피부로 느끼는 사람이 있어야 하고 설사 낙선해도 다른 후보에게도 해결을 촉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무엇보다 문제해결의 힘을 가질 수 있고 주민생활의 제반문제가 사실 행정에 관한 문제고 보면 제도권안에 들어가 풀어내는 게 정말 효율적이라 믿거든요. 더욱이 내 위치가 바뀌어 힘을 갖게 되면 동네 주민여성들과 조직에 더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고 그간 '웬 여자가 떠드냐'하던 데서 동장까지 맞대면하며 몇몇이 요구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홍 씨가 이런 구체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서 더 큰 자신감을 얻은 것은 그가 회장으로 있는 <십정동연대모임>에 들어 있는 5개 단체, 인천지역진료소연합 열우물(십정동)진료소팀, 인천지역사회연합 십정동반, 두곳의 민중교회, 그리고 햇님방여성회가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은 데서 찾아진다. 주민자치조직의 구성을 돕던 이 연대 모임은 십정동의 현안이 '주거환경개선 사업(철거)'보다 지자체가 먼저 들어오자 신중한 논의 끝에 홍 씨를 가장 적합한 후보로 밀었던 만큼 선거법이 정한 선거 운동원 10명 중 6명을 이미 이 모임에서 확보했다.

십정동 내 20여 명의 어머니들로 구성된 햇님방여성회에서도 "몸으로 뛰어주겠다"며 홍 선생을 적극 지지하고 있다. 햇님방여성회 어머니들은 홍 선생이 후보로 등록하는 데 필요한 50~1백명의 주민추천서를 받아오기도 했고 동네주민의 의견 청취도 도맡기로 했다.

"평소 단돈 백원에도 벌벌떨던 한 어머니가 그 자리에서 선거비용으로 1만원을 내겠다고 했을 때는 정말 저도 감격했고 여성회 소속 어머니들이 모두 '와'하고 놀랐어요. 또 미숫가루며 무말랭이를 만들어 팔아 마련한 공동기금 1회분(15~20만원)을 내놓는다는 결정을 내리면서 여성회 사람들이 '우리 동네처럼 모범적인 곳도 찾기 힘들 것'이라는 자찬을 하기도 했는데 저로서는 솔직히 새힘이 솟아나는 기분입니다. 그러나 우리 동네가 가난한 만큼 없는 사람 입장에서 처리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어깨가 무겁습니다."

인천 북구는 가장 형편이 어려운 주민밀집층으로 주안 5·6공단에 일나가는 주민들이 거의 십정동에 살고 있고 서울과는 달리 중치면 나가서 쓰레기를

이 겪는 어려움도 크다. 또 여름에도 길넓은 다른지역이 받는 방역혜택도 뿔수가 적게 돌아오고 놀이터 하나, 공동쓰레기장 하나 제대로 없어, 일나가는 여성들이 전전공궁하는 형편. 그래서 홍 씨는 이렇게 산적한 문제부터 해결해 나가야 된다고 굳게 믿고 있고 더 나가서는 공장 대신 집에서 부업거리를 하는 여성들을 위해 <공동부업장>과 <공동밥집>, <공동세탁장> 그리고 <탁아소 설치> 문제에 대한 비전을 갖고 있다.

"임금이 올라도 부업단가는 떨어질 때가 많아요. 아이문제나 집안일 때문에 집에서 일하길 원하는 여성들이 많은데 개인적으로 하다 보면 하청의 성격상 좋은 조건의 단가를 따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성회에서 운영해 온 게 좋은 조건을 따는 공동부업팀이었는데 지금은 일거리가 없어진 상태죠. 이 일 대신 여성민우회에서 하는 함께 가는 소비자모임인 생활협동조합에 가입, 우리가 생산자역할을 맡아 미숫가루와 무말랭이 등을 생산해왔지만 공동생산 장소가 없으니 품목개발도 힘들고 한계가 많아요. 앞으로 지자체가 되면 공동밥집과 세탁장 등 이런 문제를 꼭 해결하도록 할 작정입니다."

홍 씨가 특히 공동밥집과 세탁장에 큰 관심을 쏟는 이유는 이곳 여성들이 집집마다 비싼 세탁기를 들여놓을 수도 없지만 매번 밤늦게까지 밀린 빨래에 몸살이 나거나 새벽마다 일나가 아침밥이나 도시락을 싸줄 수 없는 문제를 속 시원히 해결할 수 있다는 점, 이런 시설이 사회제도적으로 됐을 때 부쩍 다가올 여성에 대한 사회의식 수준의 향상 때문이다.

"탁아소문제가 전사회적으로 거론되니 '탁아소는 북한에나 있는 것'이라거나 오죽 못났으면 애들을 탁아소에 맡기냐'는 고정관념이 일시에 깨졌거든요. 우리 햇님방에 공동으로 쓸 수 있는 세탁기가 있어도 엄마들 스스로 '어떻게 여자가 빨래감을 싸들고 다니냐'는 비난을 의식해요. 여성 문제에 대한 의식이 깨지면 전체 사회분위기와 제도적 장치 마련과 함께 가야지 단순한 의식교육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홍 씨가 이곳에서 부딪쳤던 또다른 문제는 여성이 깨어도 남편의 고루한 사고가 함께 깨지 않으면 힘들다는 사실. 그래서 홍 씨는 앞으로 엄마들만 배우는 교육프로그램 외에 부부가 함께 변화해 갈 협의구조 구성도 계획하고 있다. 이런 홍 씨는 최근 '엄마처럼 항상 잘 웃고 이웃을 돕는 사람이 되겠다'는 어린 두 딸의 지지까지 받고 얼마남지 않은 선거기간을 위한 지자체선거전략을 짜는 데 여념이 없다.

유독 후보물색에 큰 어려움을 겪는 여성계와는 달리 지자체를 정계진출의 호기로 삼으려는 많은 후보의 난립이 유권자들의 고민을 한층 가중시키고 있는 요즘, 말그대로 참민주주의를 실현할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바람직한 후보자상'은 과연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또 유권자들은 어떤 후보를 진정한 우리의 대표로 뽑아야만 할까.

후보난립과 후보선택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와중에서 우리의 고민을 시원스레 풀어줄 참후보자의 얼굴을 한 여성이 지역사회단체와 여성주민들에 의해 후보로 추대됐다.

그 화제의 주인공은 야당과 재야의 연합공천이 확정된 인천에서 달동네로 유명한 북구 십정동의 '햇님방 선생님' 홍미영(37) 씨.

한겨레신문 광고국에 근무하는 남편(39)과의 사이에 보미(13), 세미(11) 두 딸을 둔 어머니로서 또 십정동에서는 한없이 성실하고 고마운 선생님, '이웃집 아줌마'로 통하는 홍 씨가 경기여

고를 나와 이대 사회학과를 졸업한 재원임을 아는 지역주민은 거의 없다. 이렇듯 그가 지식인의 모습에서 평범하고 착한 동네 아줌마로 달동네 지역운동가로 변신하기 시작한 것은 85년.

어린 두 딸을 데리고, 또 아내의 뜻을 존중했던 남편과 인천만석동에 자리를 잡았던 홍 씨는 이곳이 강제철거되는 바람에 지금의 십정동으로 옮겨 오게 된다. 그때부터 그는 이 지역주민들을 위한 탁아방을 열고 쓰레기처리, 공중전화설치며 아이들 교육문제 등 온갖 곳은 동네일의 해결에 발벗고 나섰다.

이제 완전한 '이곳 사람'이 된 그가 이 지역에서 더 깊은 뿌리를 박기 위해 어려운 결단을 내리기까지는 많은 고민을 해야 했다.

"처음 후보추대 움직임이 있었을 때 완강히 거부했어요. 이곳에 들어와 지역 주민과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교육도 하고 상담도 하며 빈민지역 고유의 문제를 해결하려 했던 것은 더불어 나누는 공동체 삶을 위해 개인 여성